

28 죄를 용서받는 제사

레위기 4장, 16장



다음 이야기를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대중, 소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대중이와 소진이 무엇을 궁금해서 선생님에게 왔을까?

대중: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막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소진: 선생님, 저도 질문이 있어요. 저는 사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어렵기만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해 달라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하하하! 그렇구나. 잘 찾아왔다. 성막을 배우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단다.

대중: 네?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아! 그리고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나요.

소진: 선생님,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성막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또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 보렴.



아들 : 아버지! 사람들이 성막에 많이 모여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아버지 : 오늘은 대 속죄일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날이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방법을
주셨는데, 일 년에 한 번씩 큰 제사를 드리는 것이란다.

아버지 : 우선 우리의 죄를 대신할 짐승이 필요하단다.

아들 : 아! 그래서 사람들이 염소를 성막으로 데리고 갔군요.
그런데 왜 아무런 죄가 없는 염소가 죽어야만 하나요?
이 염소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걸요.

아버지 : 그것은 죄가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란다



아버지와 아들은 대제사장이 어린 염소에게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옮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양을 죽이고 또 태우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들 : 아버지, 염소가 피를 흘리고 죽는 모습이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께서서는 정말 죄를 싫어하시나 봐요.

죄를 용서받는 제사

레위기 4장, 16장

28



아버지 : 대제사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간단다.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대제사장은 그곳에서 언약궤 위의 속죄소에 염소의 피를 뿌린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제사장은 살아서 지성소에서 나오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제사장은 죽게 된단다.



아들 : 아버지, 대제사장이 살아 있어요!

아버지 : 그래, 그렇구나.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구나!



선생님 : 자, 이제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았지?

대중 : 네, 구약시대에는 저렇게 죄를 용서받았군요.

선생님 : 그래, 맞아! 대중이 구원받기 전에 선생님에게 뭐라고 말했었는지 기억나니?

대중 : 하하! 부끄럽지만 저희 집 강아지가 대신 죽으면 안되냐고 물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짐승이 대신 죽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 그래, 대중이가 잘 기억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주셨지.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단다.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불완전한 제사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를 주셨단다.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이란다.

소진 : 아! 마치 죄가 없는 짐승이 죽어야 했던 것처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군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군요.

선생님 : 맞아, 너희가 정말 말씀을 잘 들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했단다. 피흘림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이지.

소진 :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양이나 염소가 죽을 필요가 없네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으니까요.

선생님 : 그래, 우리 소진이가 말씀을 잘 알고 있구나.

소진 :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대중 : 선생님, 저도 그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 9:12)

죄를 용서받는 제사

레위기 4장, 16장

28



소진: 그런데, 선생님! 제사장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대중: 선생님, 저는 제사장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제사장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선생님: 아! 우리 대중이는 정말 똑똑하구나. 그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단다.

소진: 너무 기뻐요. 선생님! 저는 이제 걱정이 되지 않아요.

선생님: 소진아, 뭐가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니?

소진: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매년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저는 불안하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아요.

선생님: 그래 소진아, 선생님도 기쁘단다.

대중, 소진: 선생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의인':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여러분도 두 친구처럼 구원을 받았나요?

여러분의 구원 **간증**을 쓰고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간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



성경 암송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12)

예 화



마지막 설교

찰스 스펀전은 임종 시에 그의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제 나의 신학은 다음 네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내가 만약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좀 더 길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

부모님란

선생님란